

환절기를 대비한 가축위생관리

류 일 선 기술지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무더운 여름 날씨가 끝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가을철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면역능력과 체력이 낮은 어린 가축들은 환경(온도, 풍속, 습도 등)의 변화에 의한 대사불균형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통해 생산성 저하와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바깥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낮에는 충분히 환기를 해주고, 밤에는 보온이 되도록 한다.

소의 위생과 질병예방관리

송아지 사육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질병은 생후 1개월령 이내에 발생하는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다. 폐사율은 목장상황에 따라 3~30%로 큰 차이가 있으며, 발생요인은 환절기 사양환경 급변, 면역력 정도, 영양 및 사양관리 등이다. 호흡기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심한 환절기에는 각종 바이러스, 세균이나 진균 등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증가한다.

발생요인은 심한 일교차, 만성질환으로 허약한 상태로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와 경미한 호흡기 질병을 가진 경우이다.

한우

- 급작스런 사양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의한 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 대책마련
 - 조기에 충분한 초유먹이기
 - 갓 태어난 송아지나 신생송아지에 대한 보온 등 알맞은 위생관리
 - 심한 일교차에 대비한 방풍 및 가축사의 보온관리

- 발생우려가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
 - 소 바이러스 설사병, 소합포체성 폐렴, 파라인플루엔자, 전염성 비기관염 및 송아지 설사병 등에 대한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
- 외부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입식당일에는 따뜻한 물, 양질의 조사료를 주고, 농후사료는 다음날부터 서서히 양을 증가시켜 급여한다. 스트레스를 조기에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이 되도록 한다.
- 기생충성 질병예방을 위해 새로 입식하는 소의 구충은 물론 봄·가을에 정기적인 구충과 방목 전에 구충을 실시한다.
- 피부손질과 함께 축사바닥이나 운동장의 날카로운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발굽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젖소

- 충분한 초유의 급여와 보온
- 갑작스런 외부 환경변화와 체력저하에 따른 유방염 발생증가에 대비한 예방대책 마련
 - 착유의 위생적인 관리준수와 종창된 유방은 소염제나 마사지 등으로 유방을 풀어준다.

- 유방염에 걸린 개체는 높은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 신생송아지에 대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우려에 따른 적기 예방접종
- 일부 소의 체중이 갑작스럽게 감소하거나 서서히 저하되는 만성소모성 질병에 걸리면 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건강검진 실시
- 급격한 온도차이가 나는 환절기에 발생하는 변질된 담근먹이(사일레지)를 먹이지 말 것.
- 사료를 보관하는 곳은 직사광선과 습기의 차단으로 고온다습하지 않도록 해주며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돼지의 위생과 질병예방관리

가을철이 되면 아침·저녁의 쌀쌀한 기온과 한낮의 높은 온도로 인한 심한 기온차로 각종 소화기, 호흡기질병 등의 번식과 성장 저해요인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돼지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한다.

돼지 사양 및 위생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인 ① 환경적인 요인, ② 영양학적인 요인, ③ 질병학적인 요인 등을 계절에 따라 효율적으로 맞추어 줌으로써, 돼지의 건강을 보다 증진시켜 번식과 증체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환절기인 가을철은 자돈을 많이 분만하는 계절이므로 환경의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신생자돈의 보온과 환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돼지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① 각종 전염성 질병, ② 내외부 기생충, ③ 영양학적인 결핍증, ④ 사료 변경 및 변질 등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사전에 점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돼지를 하루속히 체력적으로 회복시켜 번식률을 향상시키고, 또 성장 중인 돼지는 환경개선으로 사료효율을 높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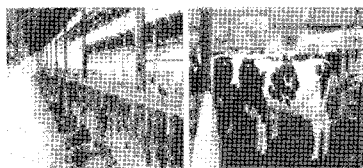
등 각기 사육목적에 맞도록 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겨울철의 혹한을 대비하여 완벽하게 월동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닭의 위생과 질병예방 관리

가을철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백신접종관리가 필요하다. 계사주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관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환절기 온도와 환기관리 그리고 방역위생관리의 소홀이다. 환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면역능력의 저하와 계사 내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밀폐된 상태에서 닭을 사육하여, 계사 내의 암모니아가스, 탄산가스, 유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와 배설물이나 먼지를 매체로 날아다니는 각종 병원균과 일반세균 등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기 쉽다. ㉔

〈농촌진흥청 농업녹색기술 10월호〉



▲ 호흡기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여 환절기에는 각종 바이러스, 세균이나 진균 등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증가하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돼지를 체력적으로 회복시켜 번식률을 향상시킨다.



▲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관리가 필수적이고, 계사주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관리를 우선적으로 선행한다.